

경제

‘리콜 냉장고’ 만든 삼성광주전자 긴장

“품질경영 무너졌다” 이진희 前 회장 대노

생활가전 대수술 ... 세계 1위 도약 발판으로

삼성 생활가전의 국내 핵심 거점인 삼성광주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가 만든 지열 냉장고...

은 제품 개발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제조단 단합해온 삼성광주전자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광주전자는 리콜 규모가 국내 백색 가전 부문에서는 최대 규모인데다 리콜 제품을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이진희 회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 전체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경기도 용인의 가정집에서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가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평소 ‘불량한 양이다’며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으니 ‘분체형 냉장고’를 넘어서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조로 삼

을 정도로 품질 경영을 강조해 왔다.

15년 전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던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 등 15만대를 구미공장에서 불태운 이른바 ‘화형식 사건’은 그의 품질제일 경영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995년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 2천대를 임직원에게 실 선물로 돌렸는데 통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해 3월 시중에서 나간 제품을 모두 회수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당시 시가로 500억 원이 차였다.

이는 삼성전자가 이른 ‘애니콜’ 신화의 밑거름이 됐다. 신경영으로 요약되는 1993년의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세가지 금형 불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는 사내 방송을 듣고 품질 강화를 서두르

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이번 냉장고 리콜 사태로 이와 관련된 삼성전자 개발 및 설계 부문 등 그룹 전체적으로 한층 강화된 품질 경영 방침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창립 4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두고 21만대에 이르는 냉장고 리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이 전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단순히 리콜로만 끝나겠느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세계 1위 품목으로 만들기 위해 실 선물로 돌렸는데 통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해 3월 시중에서 나간 제품을 모두 회수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당시 시가로 500억 원이 차였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등백동의 한 아파트에서 삼성전자의 2006년형 지열 냉장고(680ℓ)가 폭발해 냉장고 문이 날아가면서 다용도실 미닫이 유리문과 창문이 깨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로봇 자동차 ‘봉봉’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자동차 로봇전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대학생들이 출품한 소형 자동차에 올라타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연탄값 내달 21% 인상

光銀 누적순익을 482억 달해

연탄 소비자 가격이 내달부터 21% 인상된다.

지경부 측은 “인상된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서민가정이 아닌 화폐가치, 식당 등 비(非)가정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커져 보조금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2년 전 정부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철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매년 연탄가격을 올리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오른 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경부 측은 “인상된 489원에는 정부 보조금 322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서민가정이 아닌 화폐가치, 식당 등 비(非)가정용 수요가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커져 보조금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2년 전 정부 보조금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철폐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매년 연탄가격을 올리고 있다.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는 오른 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도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이 3분기 12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려 올 들어 3분기까지 48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광주은행은 29일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1천80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지만 대손충당금 적립액(매일 것을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400억원 넘게 쌓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16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당기 순이익도 122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135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올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영업수익 3천238억원에 영업이익 673억원, 순이익 482억원

을 기록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순이익 마진(NIM) 개선 등으로 실적은 좋았지만 대손 충당금을 평소보다 많이 적립하는 바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기자 bungy@kwangju.co.kr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585.85 (+23.86), 코스닥지수 482.34 (+6.48), 금리 (국고채 3년) 4.45% (+0.06), 원·달러 환율 1,196.00원 (+0.60)

삼성광주전자 상생협력 ‘우수’

공정위, LG디스플레이 등 4개사 선정

삼성광주전자와 삼성전자, 서울통신기술,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관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삼성전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도 공정위의 제재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7월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맺은 9개 대기업의 지난 1년간 이행 실적을 평가해 이들 4곳에 ‘우수 등급’을, 반도체 장비업체 세메스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개사가 359개 협력사에 지원한 자금은 삼성전자가 2천272억원, 삼성

광주전자가 441억원, LG디스플레이 377억원, 서울통신기술 10억원, 세메스 10억원 등 총 3천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인상해 준 금액은 1천142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하도급 대금의 95~100%를 현금이나 기업 구매카드와 같은 어음대체 수단으로 결제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 초까지 액정표시장치(LCD) 부품 납품업체들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삼성전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

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위반 혐의는 지난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기 전에 일어난 일로, 이번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년간 공정위의 서면조사와 직권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등급의 판정을 받은 4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급업체와 맺은 협약을 보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 11월도 “부진”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11월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 319개를 대상으로 벌인 2009년 10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11월 제조업 업황전망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7로 전달의 93에서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화확업황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제조업 매출전망 BSI도 전달의 100에서 95로 5포인트 내려앉았고 11월 제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99-99), 생산성전망 BSI(101-83), 생산설비수준전망 BSI(101-99), 제품 판매가격전망 BSI(101-94)도 모두 하락했다.

/김정수기자 bungy@kwangju.co.kr

캐리어 노조 ‘절반 감축’ 반발

“금속노조 연계 생존권 보장 투쟁 나서겠다”

에어컨 제조 전문업체인 캐리어 에어컨 노조는 29일 오후 광주 하남산단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며 생존권 보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상 어려움은 수년간 인력 구조조정에만 몰두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하지 않았던 회사의 잘못”이라며 “2006년 373명을 내쫓고 해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회사는 임원을 늘리는 식의 행태를 보여오다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노조는 이어 “광주공장 생산물량을 2013년까지 40% 늘리겠다는 회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결국 정규직을 내보내고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사측은 구조조정에서 부실경영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신규 설비 투자에 나서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한편, 캐리어는 다음달 14일 전 체 조합원 543명의 51.6%에 해당하는 280명을 정리하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and services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various property details.

수원롯데마트바로 옆 수원아울렛.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shopping center area, listing features like parking, escalators, and brands.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specific area, listing various types of properties for sale or rent.